



2021.8.26.

국회미래연구원 | Futures Brief | 2호

#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Futures Brief

---

2021. 8. 26

Vol. 2

ISSN	2799-3531
발행일	2021년 8월 26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Futures Brief」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분절에서 통합으로

삶의질그룹 조해인

### 요약

#### I. 연구배경

1. 지속가능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 SDGs 연구 리뷰 및 연구 목적

#### II. 연구방법

1. 자발적 국별 리뷰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리포트
2.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1. 8개 국가의 통합적 VNR 비교
2. 국가별 VNR키워드 네트워크 비교
  - 1) 한국 VNR 분석 결과
  - 2)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VNR분석 결과와 비교

#### IV.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미래 SDGs 방향에 대한 논의

#### V. 결론

#### 참고자료

- G8국가와 한국의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리포트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비교 분석하여, 국가별 SDGs 이행의 경향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 한국은 ‘경제’, ‘사회’, ‘환경’에 집중됨을 보였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연결해주는 링크는 발견되지 않았다.
- 해외 선진국가들의 경우, 몇 가지 특정단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화 된 다양한 단어들 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되어 있었고 상호 연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지만,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이 상위 가치 단어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단어들과 연관된 하위 가치 단어로 ‘환경’, ‘경제’가 언급되었고, ‘보호’와 연관되며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 한국이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1) SDGs 목표에 다수의 더욱 세부적인 목표를 연관시키고 2)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서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 추가적으로 북한 VNR도 분석해, 자연재해 관리에서 남북한 간 협력 과제와 방안도 제시했다.

# I. 연구배경

## 1. 지속가능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최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G20 환경, 기후, 에너지 합동 장관회의가 있었다. 모두가 이견 없이 공감한 내용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시점 이라는 부분이다. 산업계에서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의 포괄적 해결 방안은 2015년 193개 유엔 회원국이 채택하고 이행중인 17가지 지속가능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다.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 (leaving no one behind)’라는 포용성을 중심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을 다루며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2. SDGs 연구 리뷰 및 연구 목적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는 발전으로,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한다<sup>1</sup>. 그래서 국가 별 SDGs리포트를 통해 각 국가가 원하는 미래사회 모습을 알 수 있고, SDGs 이행 방식의 경향도 파악할 수 있으며, 국제 규모 비교를 통해,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도 디자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SDGs리포트를 분석했다. ‘국가’ 단위에 집중해, 국가별 SDGs리포트를 질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SDGs를 이행하는 ‘행위자 (actor)’에 집중해, 정부와 산업 간 SDGs이행 관점의 차이를 설문과 리포트 분석으로 알아보기도 했다. 또는 SDGs ‘지표’에 중심을 두고,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SDG Index 스코어를 이용해 SDG지표와 우리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SDG12와 SDG13이 사람들의 웰빙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을 발견하기도 했다[1].

본 퓨처스 브리프에선, 해외 선진국가들을 선별해 우리나라 SDGs 이행 방식과 비교하며, SDGs 달성 전략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SDGs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본다. 또한 우리 사회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SDGs이행에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00>

## II. 연구방법

### 1. 자발적 국별 리뷰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리포트

UN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SDGs 이행계획과 목표에 대해 UN고위급정치포럼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보고하는데, 이 때 제출하는 보고 자료가 바로 VNR이다. UN이 정한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sup>2</sup> 에 2016년부터 국가들이 제출하기 시작했고, 적어도 4년에 한 번 제출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다. 단어가 전하는 의미 그대로, 국가가 자발적으로 SDG의 목표와 성과를 평가한 과정의 결과물로, 보고서 작성에 요구되는 형식은 없다.

### 2. 연구방법

VNR은 각 UN회원국들이 나라별 SDGs 이행 과정과, 경향, 결과를 국가별 상황과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며 적은 리포트로, 국가별 SDGs의 이행을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하며 살피기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본 브리프에선, G8국가<sup>3</sup>를 포함한 8개 UN회원국들의 VNR리포트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비교 분석하며, 나라별 비전과 SDGs이행의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리포트 별로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을 추출하고 분류해 국가별 SDGs이행 전략을 한 눈에 알아보게 하고, 전반인 트렌드 비교를 용이하게 했다. 선진국가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SDGs 이행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가져가야 할지, 다른 나라와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무엇일지 추측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결과

### 1. 8개 국가의 통합적 VNR 비교

총 8개 리포트를 분석하고 tf-idf가중치<sup>4</sup>를 구해, VNR의 국가별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

<sup>2</sup>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sup>3</sup> 미국의 VNR은 플랫폼에서 발견되지 않음

<sup>4</sup> tf-idf가중치는 각 문서에서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단어를 추출해내, 추출된 단어와 문서 간의 가중치 값을 구해, 문서별 핵심 단어 뿐만 아니라 문서 간의 유사성도 판단하게 해주는 지표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의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tf-idf알고리즘을 활용했다.

[그림 1] 문서간 유사성 확인 (x, y축은 각 문서의 x, y 벡터 값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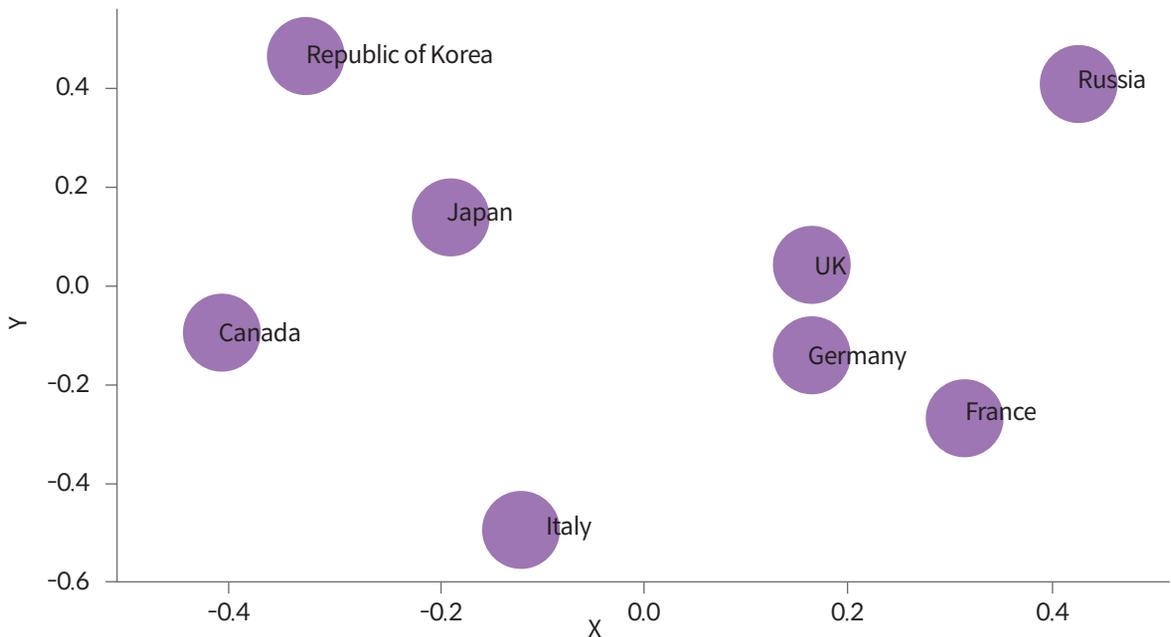


그림1에서 국가 간 거리가 가까울 수록, 국가별 특징을 드러내는 키워드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G8국가 중 일본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VNR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유럽, 캐나다, 영국은 한국과 다른 키워드들에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대륙 국가만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조금 동떨어져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GDP를 보면,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네 국가는 2020년 OECD국가 평균GDP를 넘어선다. 이는 최근에 75개 국가의 VNR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연구에선 SDGs의 국가별 핵심 의제가 경제 성장률과 상관성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2].

그렇다면, 8개 국가의 VNR을 이루는 키워드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출한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 cluster를 만들었다. 다음의 표1에선, 국가별 상위 10위권을 차지하는 cluster와 각cluster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cluster를 이루는 연관 단어들을 국가별로 보여준다.

[표 1] 국가별 VNR비중 상위 10위 cluster의 핵심, 하위 단어

국가명	비중 상위 10위 cluster 핵심 단어	cluster 내 하위 단위
Republic of Korea	society	local, 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ttention, business, stakeholder, seoul, response
	environment	growth, innovation, condition, technology, green, five, action, energy
	economy	instance, escalation, context, activity, task, vision, governance
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domestic, principle, office, mechanism, ensure, strengthening, institutional

국가명	비중 상위 10위 cluster 핵심 단어	cluster 내 하위 단위
Republic of Korea	act	population, gender, ageing, csd, cidc, report
	service	health, community, public, support, sector, financial,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aim, multilateral, strengthen, enhance, crisis
	resource	water, management, use, specie, marine, ecosystem
	oda	project, program, agency, contribution, disease, information
Canada	energy	environment, resource, change, project, climate, infrastructure,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access, water, improve, information, provide, network, long-term, aim, legislation
	social	worker, act, protection, province, lead, law
	including	community, people, indigenous, organization, partnership, partner, challenge,
	forest	management, industry, waste, specie, land, plastic, manage
	health	service, public, right, sexual, violence, prevent, human, discrimination, assault
	work	help, child, ensure, need, family, make, job, continue
	woman	growth, benefit, economic, gender, opportunity, girl, women, leadership
	strategy	poverty, reduce, risk, emission, home, housing, focus, reduction
	education	training, school, end, female, skill, employment, experience
France	energy	consumption, share, source, increase, renewable, benefit, financing, technology, africa
	environment	society, high, security, protection, class, academic, balance, responsibility
	public	health, right, inequality, universal, challenge, abolition, reproductive, human
	economy	growth, inclusive, smart, europe, commission, solidarity, project
	access	employment, land, vulnerable, improve, ensure, quality, life, child
	education	housing, training, measure, adopted, conducting, research, reform
	waste	reduce, food, greenhouse, local, gas, emission, authority, cut
	biodiversity	service, ecosystem, marine, pollution, respect, nature, practice, sustainably
	poverty	people, pledged, capture,
Germany	climate	action, renewed, impact, agreement, partnership
	climate	action, programme, environment, protection, act, change, base, investment, effect
Germany	people	young, suffering, inclusion
	trade	arm, working, alliance, condition, living, right,
	economy	inclusive, safe, material, research, innovation, orderly, effective, green, growth
	society	sustainability, inequality, principle, standard, business, transfer, leaving
Germany	woman	management, future, peace, food, security, generation, agriculture, council, sexual

국가명	비중 상위 10위 cluster 핵심 단어	cluster 내 하위 단위
Germany	right	labour, human, market, opportunity, protecting, heading, adequate, equal
	health	service, law, transport, good, sector, practice, housing, public, basic
	education	partnership, life, training, vocational, proportion, quality, higher
	consumption	energy, share, digital, product, source, gross, technology, foreign
Italy	including	community, people, woman, indigenous, organization, partnership, challenge, many, girl
	international	assistance, federal, commitment, partner, agenda, trade, agreement
	growth	benefit, economic, gender, opportunity, social, leadership, greater, achieve, diversity
	strategy	help, poverty, ensure, reduce, risk, emission, housing
	world	one, inclusive, life, job, strong, institution, society, quality
	health	system, access, service, need, public, right, improve, information
	education	training, school, end, skill, employment
	income	standard, market, tax, carbon, labour, code, pension, low
	environment	change, climate, agricultural, priority, impact, marine, protect, resilience
Japan	energy	resource, water, project, economy, forest, sector, infrastructure, technology, use
	energy	experience, share, modern, efficiency, scale, clean, method, fundamental
	child	people, person, center, poverty, violence, refugee, sexual
	food	economy, household, growth, waste, industry, amount, industrial, agriculture, priority
	action	city, future, lead, data, consumer, figure
	local	promoting, business, community, activity, survey, agency
	change	case, climate, finance, infection, model, measure
	measure	total, proportion, woman, population, working, domestic, value
	promotion	basic, gender, stakeholder, act, minister, participation
Russia	resource	research, management, human, forest, right, institution, corporate, security, ecosystem
	society	access, work, realize, inclusive, youth, employment, build
	gas	reduction, oil, poverty, report, content, vegetable, sugar, electricity, trend
	law	agency, fishery, regional, district, excluding, skill,
	water	energy, waste, consumption, supply, plant, generation, clean, management, production
	state	support, country, programme, financial, assistance, market, strategic
	citizen	right, human, personal, interaction, consumer, female
	resource	natural, forest, biological, covid, protected, aquatic
	project	technology, measure, digital, practice, financing, ensuring
product	land, food, climate, agreement, use, fish, action, security	

국가명	비중 상위 10위 cluster 핵심 단어	cluster 내 하위 단위
Russia	economy	society, protection, woman, employment, sector, industry, commission, growth
	education	training, access, quality, equal, institution, ensure, life, living
UK	environment	food, marine, waste, future, plastic, household, reduction, centre, act
	business	research, statistic, activity, innovation, home, agriculture
	community	economy, local, working, growth, partnership, clean, technology
	health	society, service, public, sector, transport, private
	poverty	reduce, tackling, challenge, emission, gap, gender
	disease	income, carbon, budget, low,
	better	biodiversity, ecosystem, state, planning, family, member
	data	sreport, survey, show, crime, source, performance
	action	tackle, set, commitment, progress, key, priority
	people	education, child, coverage, employment, population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의 VNR에서 에너지, 환경 또는 기후를 가장 핵심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에선 including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한국은 economy가 주로 언급된 단어인 반면,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에선 economy는 하위 주제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economy가 4,5위의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 단어로 발견됐는데, 한국에선 이 단어가 vision, governance로 이어진 반면, 두 나라에선 inclusive, smart, green, growth로 이어졌다. 유럽과 북미 나라에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과 달리 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주체 또는 주제를 비중이 높은 핵심 단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woman, trade, right, biodiversity, poverty, marriage, income등이 그 예시다. 일본도 child, food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곧 people, economy로 연계되며 범위가 확장되게 된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biodiversity와 같은 단어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해양 생태계 (marine, ecosystem)의 오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환경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 까지 알 수 있다. 단어의 조합만으로 프랑스의 정책을 예상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각 핵심 키워드들을 다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다.

## 2. 국가별 VNR키워드 네트워크 비교

국가별 특징적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 중 같은 문장 또는 문단에서 발견되는 단어들을 묶고 분류해, cluster를 만들었다. 이번 챕터에선, 키워드 간의 연결정도 중심성 (다른 핵심 키워드들과 연결이 되는 정도), 매개중심성 (하위 주제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의 정도)를 고려하여 한국, 이탈리아와 영국의 키워드를 분석하고 시각화 해본다.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에만 집중하기 위해,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각 국가별로 가장



environment를 통해 society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economy와 society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어들을 연결하는 직선의 두께는 곧 단어가 함께 같은 문맥에 놓이는 경우들을 의미하는데, economy와 environment 간의 링크도 그리 강하지 않다. 이는 여전히 경제는 경제 활동 (economy, activity)으로 이어지며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을 뜻하고, 환경은 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활동을 의미하며 두 분야를 통합하는 매개체가 아직 부족함을 보여준다.

Society를 보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artnership과 cluster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이 SDGs를 이행하는 방법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의 정부정책과 관련법을 통해 SDGs를 이행하고 있다. SDGs 국내 차원 이행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국외 차원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3].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는 oda, partnership이 society와 cluster를 이루고, environment, economy와는 다른 cluster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국외와 국내 차원 SDGs이행이 아직 문맥상, 통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SDGs 이행의 한계점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온 부분이고 [3],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2)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VNR분석 결과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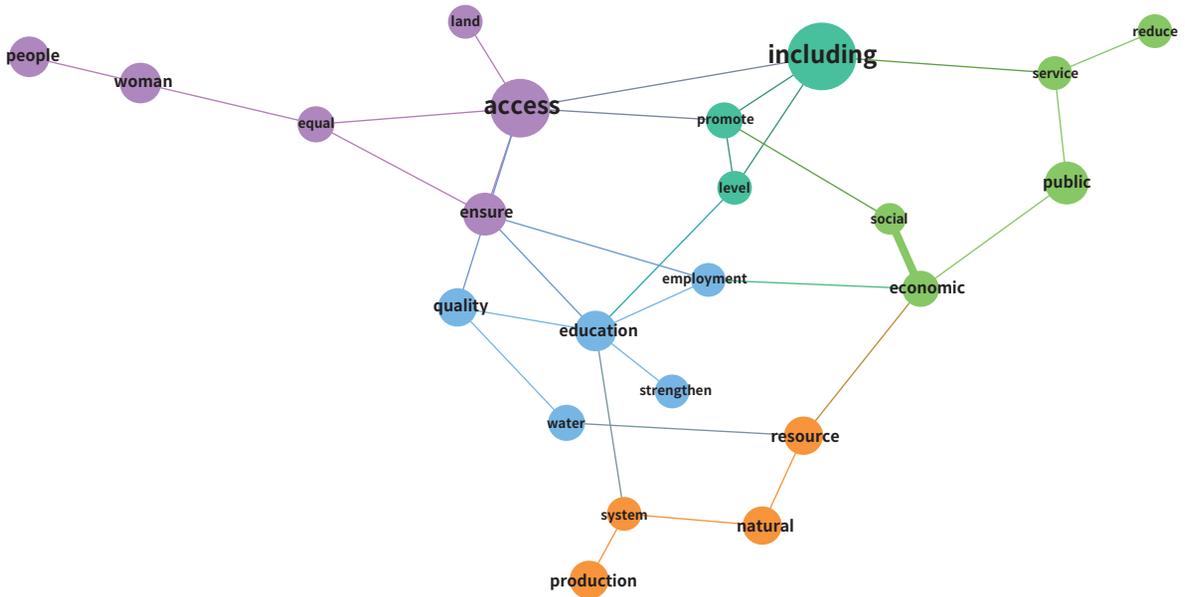
그림 1에서 한국과 양상이 많이 달랐던 국가들 중, 유럽과 북미 대륙별 한 국가씩 선별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유럽 대륙권 나라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이탈리아와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캐나다<sup>5</sup>를 살펴보자. 이탈리아 (그림3)와 캐나다(그림4)를 보면, 그림 2와 달리, 눈에 띄게 드러나는 단어가 없다. 이는 특정 단어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국보다는 덜하고, 같은 cluster내의 다른 키워드, 주제에 관한 언급도 균형을 이룸을 말한다. 각 cluster 별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에선, including public, education, natural/resource이고, 캐나다에선, environment/protection, clean/water, health/child, indigenous, woman이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경제 (economic)와 사회 (social)에 관련된 단어가 함께 빈번하게 발견되는데<sup>6</sup>, 이들이 이탈리아 VNR에선 한국만큼 핵심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economic이 employment와 이어진 건, 한국VNR에서 economy가 activity와 이어져 경제활동을 뜻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employment가 woman으로 연결되는 점 역시도 한국과 이탈리아의 유사점이다. 환경 (environment)이슈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CSOS 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에선 environment가 아닌 natural/resource라는 단어가 발견된다. 한국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환경 활동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5 미국의 VNR은 플랫폼에서 발견되지 않음

6 버블을 잇는 직선이 두꺼울수록, 두 단어가 함께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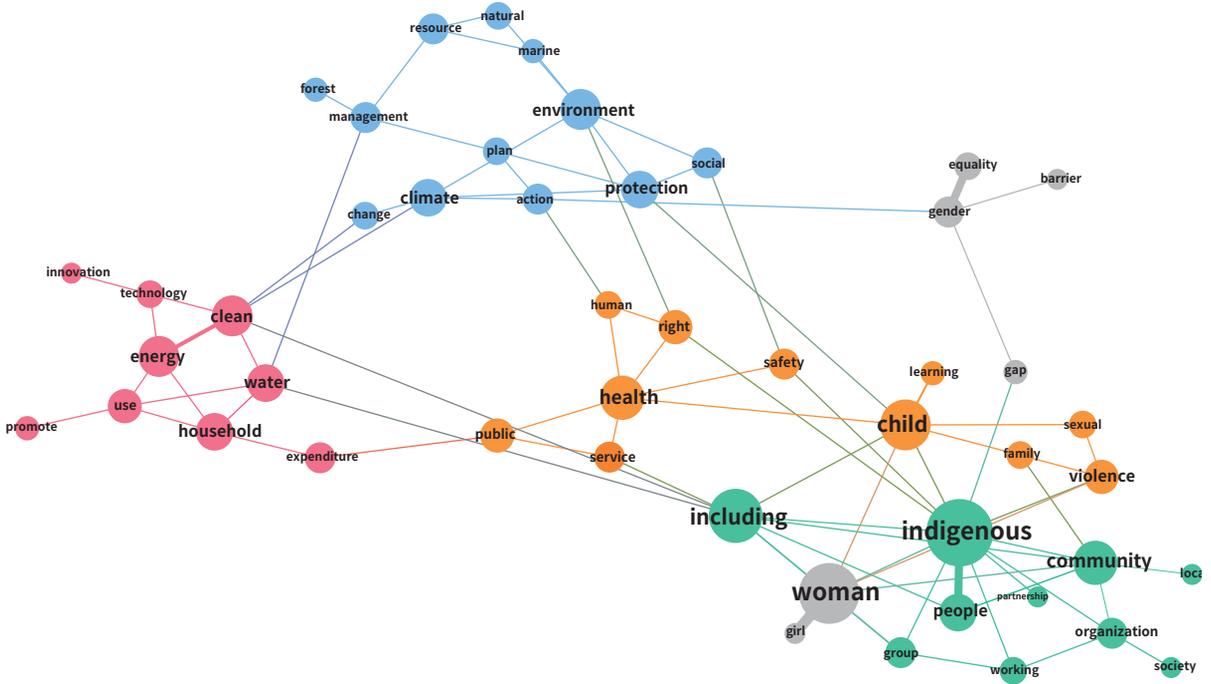
[그림 3] 이탈리아 VNR분석 결과



시민사회 단체의 더욱 적극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4]. 하지만 이탈리아에선 경제활동과 관련 지으며 환경을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더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ensure(보장)라는 단어가 영향력 있는 단어로 발견되며 access, equal, employment, education, quality와 이어져 있는 것에서, 이탈리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장(ensure)하려 하는 영역도 넓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캐나다와는 어떻게 다를까? 캐나다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indigenous이다. 2015년 당선과 함께 트뤼도는 원주민 보호를 약속했다. 2019년 발표된 원주민 여성 살해, 실종에 관한 국가보고서에서, 원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었지만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원주민과의 화해정책’을 강조했다. 원주민 보호의 약속이 캐나다 SDGs이행에 핵심적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한국, 이탈리아와 비교해 캐나다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는 단어는 economy이다. Social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니지만, environment와 같은 cluster를 이루며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 한국은 society와 가까운 단어가 inclusive, 그리고 이것은 health, education을 누리는 right으로 이어지는 반면, 캐나다에선 society와 가장 문맥을 자주 공유하는 단어들은, environment, protection, safety이다. 그리고 이는 human/rights, climate/change, gender와 연결된 action이란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 역시도, society, gender, environment가 적게나마 act라는 단어를 공유하고 있다. 자연환경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에서도 환경은 natural resource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climate change, 넓게는, energy, water 와 연결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취약계층, woman, girl, child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결국 야기하게 되는 family, violence와 같은 키워드들이 local community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도 person, disability, gender가 community와 연결되어 있다.

[그림 4] 캐나다 VNR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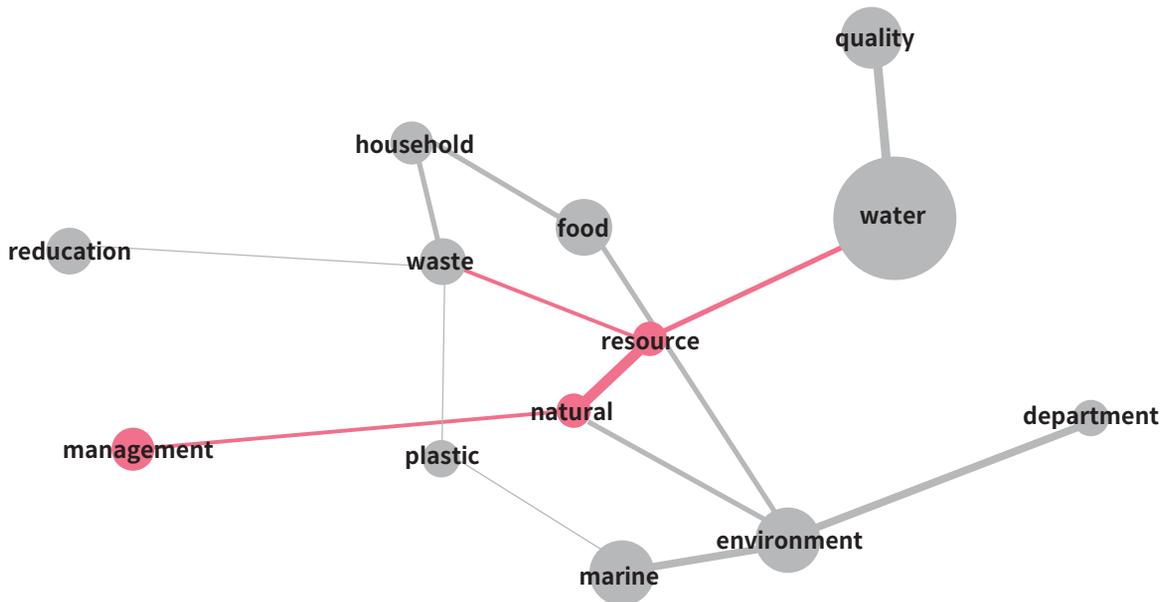
## IV.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미래 SDGs 방향에 대한 논의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다음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세울 때, 어떤 키워드를 적용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비전을 세우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본다. 대한민국의 SDGs 이행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어지는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지, G8 국가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비교하며 생각해 보자.

먼저, 환경 부문을 보면, 최근 더욱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안들로 인해, climate, change, GHG, carbon, emission 등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 한국의 VNR에서도 climate, change가 언급이 되었지만, 논의의 중심이 되진 않았다.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에서 보여졌 듯, climate, change는 action, rights로 결부되며 society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 영국의 경우(그림5)처럼 환경 문제는 food, waste, plastic, reduction으로 이어지며 폐기물 처리와 관리가 논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폐기물 (waste)을 자원으로 재사용하는 순환 경제가 현실화 되며, 이것이 resource, economy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깨끗한 물, 에너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바탕해, clean에서 energy로, 이 energy는 연구개발에 따른 business또는 technology, innovation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는 다른 G8국가에서도 관찰되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잦은 자연 재해 위험에 놓인 지역 보호가 중점적으로 논의되면, society, local, community 등과도 연결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결부되며 지역전문가 개발, 일자리 창출 (employment)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영국 VNR 분석결과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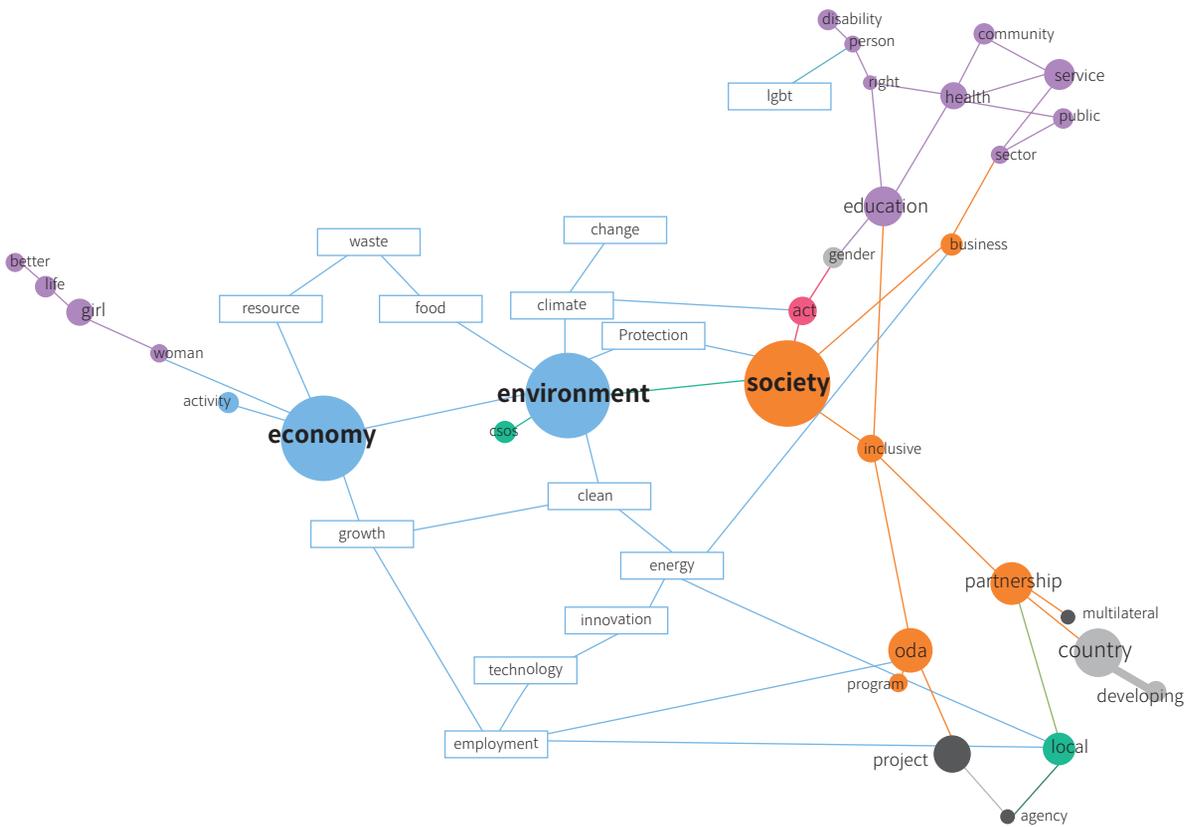
포용적 사회 (inclusive)의 주제에 연관되어, 더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영국은 woman, child, disability와 같은 레벨로 lgbt<sup>7</sup> 를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는 rights, support, local, community, action 등과 연결된다. 한국의 경우, Inclusive와 oda (공적개발원조)가 연결되어 oda를 통한 포용적 파트너십, 개발도상국과의 동반성장이 다루어졌다. oda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5]. ODA사업을 통한 전문가 양성사업이 더욱 활발해지면, employment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대부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ODA)를 통해 이루어지는데<sup>8</sup>, 정부-시민사회 (CSO) 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면, CSO와

7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  
 8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재원에 대한 사항은 담겨있지 않음 [4].

oda, program간의 연결도 가능할 것이다.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미래 한국 SDGs 이행 전략을 구상해 보았다. 개별적으로 놓여진 이 세 분야를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찾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단어들을 추출해 그림 6 (파란 상자 속 단어들)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6에 새롭게 도입된 단어의 대부분은 표1에서 발견되지 않는 단어들로<sup>9</sup>, 분야별 구체적 영향을 드러내고, 서로 다른 상위 키워드들 간에 연계성도 제시해준다.

[그림 6] 미래 SDG키워드와 그들 간의 상관관계



한국의 VNR리포트를 보면, ‘Complementarity among the strategies creates a synergy in addressing specific SDGs.’ (전략 간의 상호 보완은 개별적 SDGs이행에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고 하며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와 환경 간 상호 보완의 예로, ‘by enacting the Act on Liability for

9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재원에 대한 사항은 담겨있지 않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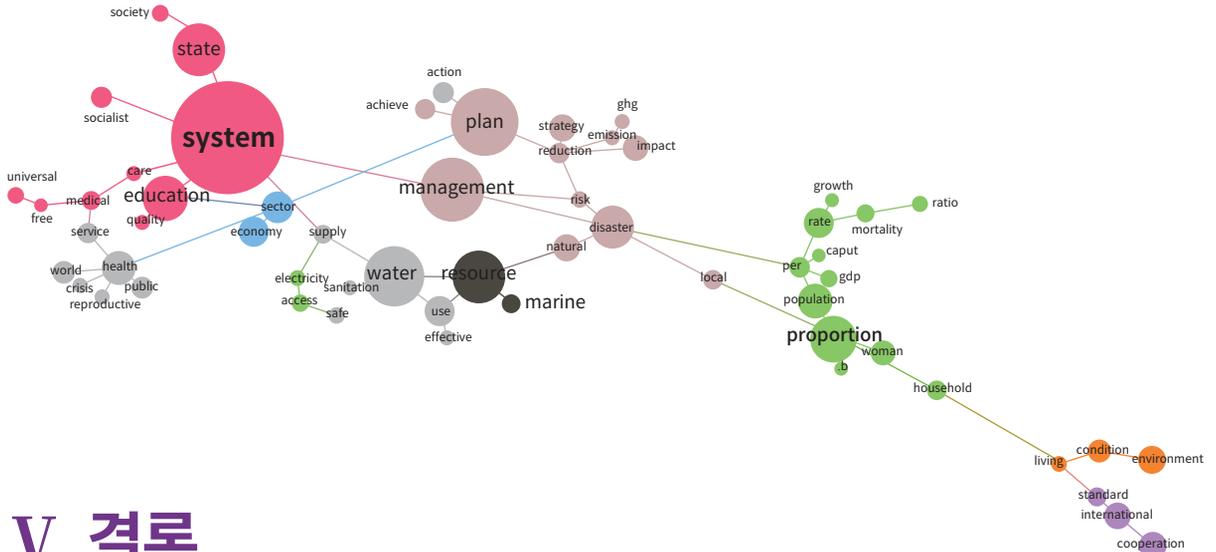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and strengthening its proactive management of toxic chemical agents, the Third Plan integrated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피해 및 구제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환경적 측면을 통합했다.)가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는 상호 보완의 개념이 아닌, 이미 발생한 환경적 피해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해결책만 제시할 뿐이다.

환경과 사회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며 장기적 SDGs이행 전략으로 활용된 예를 캐나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AAFC’s AgroEcosystem Resilience Strategy guides departmental investments into soil, water, air, climate and biodiversity research to ensure longterm protection of these resources while maximizing the resilience of agricultural lands to future climate scenarios. The Agricultural Clean Technology Strategy guides AAFC investments into developing and promoting technologies, such as precision agriculture, which helps farmers mitigate their impact on the environment.’ (AAFC의 AgroEcosystem Resilience Strategy는 토양, 물, 공기, 기후 및 생물다양성 연구에 대한 부서별 투자를 활성화해, 이러한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농지의 복원력을 극대화한다. 농업 청정 기술 전략(Agricultural Clean Technology Strategy)은 농민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밀 농업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려는 노력과 농민들이 피해 영향을 완화시키고 삶의 터전을 잃지 않게 돕는 노력이 상호 보완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삶과 농지의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기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단순한 원인 분석과 결과 해결이란 접근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통합적 SDGs 이행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림 6과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 문제의 영향과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사례들과 같이 균형적이고 통합적으로 SDGs를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2021년 처음으로 제출된 북한의 VNR (그림7)도 분석해, 한반도가 담아낼 수 SDGs 이행 방향도 분석해 보았다. 한국과 북한의 VNR 키워드 분석 결과를 오버랩 시켜, 유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서로의 SDGs이행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았다. 북한은 최근 몇 년 간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를 많이 입어, natural, disaster, risk와 같은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resource도 자연과 연결되어 북한이 자연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그 때문에 더욱더 자연재해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local, disaster, management가 많이 발견 되고, 이는 한국의 local, partnership과 연결되며, 자연재해 관리에 지역단위의 재난 대응 체계 개선과 협력이 이어질 수 것이다. 또한, 환경 문제 아래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을 두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 이는 경제 성장(economy)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북한 VNR 분석결과



## V. 결론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에게 ‘개발’은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었다. 그리고 VNR 리포트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과거 이상 수준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같은 문제는 과거와 같이 급속하게 해결되진 않고 있다 [6].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환경 문제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재정의하고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가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포용적인 개발, 자연환경을 착취하는 발전이 아니라, 이를 보존하며 현재 필요를 충족시키는 조화로운 개발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통합적으로 이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이 각기 개별적으로 이행될 땐, 되려 개별 목표 조차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해외에선 SDGs의 큰 목표에 다수의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연계시킴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environment가 climate, change로 구체화 되고 이는, 두 가지 더욱 구체화된 목표와 이어지는데, action, human, rights의 인권 문제, 또는 clean, energy, technology기술개발이다. 한국의SDG9을 살펴보면,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 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이다.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그리고 SDG9에 관련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참여를 장려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7].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되고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북한과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보완적 SDGs이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 남북협력 증진과 한반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SDGs의 이행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그 중 기업의 입장과 참여 방향은 관건이 될 것이다. 기업의 전통적 경영 방식은 재무적 이익 추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조직 활동과 영향을 구체화 시키고 사회적 책임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이의 좋은 예시가 현재 전세계의 ESG경영이다. 실제 연구 결과들도 기업의 ESG경영이 이익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익 추구라는 협소한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자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SDGs이행에서 중요하다.

환경, 경제, 사회라는 큰 카테고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 목표를 잡고, 서로 연계시킬 때, SDGs를 통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actor)들이 이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1] J. De Neve and J. D. Sachs, "The SDGs and human well-being: a global analysis of synergies, trade-offs, and regional differences," Sci. Reports 2020 101, vol. 10, no. 1, pp. 1–12, Sep. 2020
- [2] V. Sebestyén, E. Domokos, and J. Abonyi, "Focal poi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Text mining-based comparative analysis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020.
- [3] 유웅조,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현황과 개선 과제," 2020.
- [4] 공동주최 (국회 UN SDGs포럼, 김경협 의원실, 이태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2017.
- [5] 양수경, "개발협력 인재 양성과 ODA생태계 육성 방향: NGOs," J. Int. Dev. Coop., 2018.
- [6] 이상은,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58, no. 3, pp. 245–268, 2006.
- [7] 임소영, 김인철, and 정선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산업," 기후변화법제 연구, 2018.

## Futures Brief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2021.7.29
2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8.26

- 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www.nafi.re.kr](http://www.nafi.re.kr) (미래연구-미래보고서-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